

또 하나의 나, 우리



소녀,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를 꿈꾸다

76%

리더의 자리를 원하는 여성 비율
이들 중 60%는 리더가 되는 것에
자신감이 있다고 대답

남성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받는다 생각하는 여성 비율

94%

93%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겪은 여성 비율

놀랍게도 리더십 경험이 있는 젊은 여성들이
이러한 인식이 더 강했습니다.



전 세계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

18%

24%

전 세계 국회의원 중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

'포춘(Fortune)' 지 선정
500개 기업 CEO 중 여성의 비율

5%



*출처: 플랜인터내셔널 발간 Taking the lead보고서 中

*19개국 15-24세 사이 10,000명의 소녀들과 여성들을 조사



미래의 소녀 리더를 위한, '2019 Women Deliver'

'Women Deliver' 컨퍼런스는 2007년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리더들이 소녀들의 성생식 건강 및 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캠페인들을 진행합니다.

플랜도 글로벌 캠페인 'Girls Get Equal'에 대한 소개와 함께 6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19개국에서 15~24세 사이 10,0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Taking The Lead' 보고서 발표를 통해, 여성 리더십에 대한 열망과 현실을 보여주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정한 'Taking the Lead', 함께 만들어 가요!

'Girls Get Equal' 캠페인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의 결과물인 'Taking the Lead: Girls and Young Women on Changing the Face of Leadership'에 따르면, 전 세계 소녀와 여성들의 대다수가 사회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만 10명 중 9명은 여성 리더로서 차별과 성희롱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앤 버짓 알브레첸 플랜인터내셔널 대표는 "소녀들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세상을 위해 지금 당장 모든 세대, 모든 국가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녀들의 바람이 현실이라는 그들에 묻히지 않기 위한, 플랜의 노력을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플랜가족

2006년부터 13년 간 휴가 대신 후원아동을 방문해 온 후원자가 있다. 고교 시절 플랜의 전신인 '양친회'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오승수 후원자는, 성인이 되어 또 다른 아이들을 돕는 후원자가 됐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후원을 권하고 있다. 마력처럼 후원의 세계로 '입문'하게 만드는, 오승수 후원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66

제가 도운 아이가
자라 다른 사람을
도울 겁니다

- 오승수 후원자 -

99





Q. 정말 오랜 시간, 많은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처음 플랜을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양친회'에서 2년 동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도 나중에 꼭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고, 2004년부터 후원을 시작했죠.

Q. 2006년부터 거의 매년 여름 휴가 대신 아이들을 만나고 오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 후원아동 방문을 해서 아이와 유대를 쌓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니 너무 즐거웠어요. 아이가 제가 준비한 선물과 악기 연주에 즐거워하니, 저에게도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Q. 그동안 했던 많은 방문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방문이 있나요?

방글라데시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마을을 가보니 생활 여건은 나빴지만, 제가 준비해 간 것들을 보며 순수한 표정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Q. 주변 지인들에게 플랜코리아를 많이 소개하셨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후원을 시작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주로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에게 자녀와 해외 아동 결연을 맺어주는 것을 추천해요. 어린 시절부터 지구 반대편의 친구와 작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죠.

Q. 후원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동후원이야말로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움입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해 또 다른 누군가를 돕거나 자신의 나라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꿈꾸는 에세이

66

저는 온두라스에 사는
12살 낸시입니다.

99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돕고 식사를 한 후, 학교에 갑니다.
전 학교가 정말 좋아요.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플랜이 진행하는 캠페인에 참여해서
여자아이들도 남자아이들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후원자님께 편지를 쓰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편지를 써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드리곤 해요.

우리 마을에 플랜이 온 이후부터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어요.
온두라스의 어린이들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낸시의 하루 영상으로 만나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양친회의 고향’ 부산을 가다.
뜻 깊어서 ‘The좋은모임’!



플랜코리아가 ‘양친회의 고향’ 부산에서 첫 번째 지방 후원자의 모임을 열고 뜻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은 1953년 플랜의 전신인 ‘양친회’가 한국전쟁 피해 아이들을 돕기 위해 활동한 곳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여 명이 함께한 이번 모임에서는 필리핀, 인도, 동티모르 등 플랜의 사업 지역 어린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현지 아동 및 플랜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설명해 신뢰감을 높이고, 후원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한 아동부터 청년, 가족 단위 후원자까지 다양한 세대의 후원자들이 참여해 퀴즈 이벤트 및 후원 아동을 위한 선물 만들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송미영 후원자

“매달 후원금 내는 것 말고는 와 닿는 게 사실 없었는데, 플랜이 어떻게 일하는지, 후원 아동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니 더 책임감이 생기네요.”

“교환학생 시절 필리핀 빈민가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후원을 시작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편지도 한동안 못 보내고 후원아동에게 다소 소홀했는데, 편지를 좀 자주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민지 후원자



이학민 후원자

“사진을 보니 아이가 힘들어 보였어요. 후원아동이 사는 곳에 가서 수도 공사도 해 주고, 깨끗한 물을 선물해 주고 싶어요.”

플랜 지구촌 소식



라오스 학교환경 개선 프로젝트 진행

플랜은 라오스 파 아우돔 지역에서 아이들, 특히 여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3개의 기숙사 건축을 진행했다. 플랜은 기숙사 건설의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했고 침구, 전기, 환기시설, 조리시설과 화장실을 배치했다. 이로써 학생 87명과 교사 4명이 남녀가 분리된 기숙사를 편리하게 사용하게 됐다.



남아프리카 사이클론 '이다이' 피해지역 긴급구호

3월, 사상 최악의 열대성 사이클론 '이다이'가 아프리카 남부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를 차례로 강타했다. 모잠비크에서만 1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플랜은 임시 대피시설 설치 및 긴급식량, 식수위생시설, 학습 키트 제공 등 각 국가 사무소를 중심으로 620만불(70억 원) 규모의 긴급구호활동을 진행했다.

'International Girls in ICT Day' 참여

ICT 분야 관련 UN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주최하는 'International Girls in ICT Day'에 플랜이 참여했다. 이 행사는 IT 분야에서 여성들의 양성평등 및 사회적 인식개선과 여성들의 IT분야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며, 그 동안 24만 명의 소녀들과 여성들이 참여했다. 플랜은 2017년부터 행사에 참여해 여성들의 ICT 분야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파라과이에서 남녀 혼성 축구팀 결성

플랜은 파라과이에서 남녀 혼성 축구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성 고정관념을 철폐하는 과정으로 파라과리, 과이라 등 29개 지역 마을에서 300명 이상의 아이들과 함께했다. 오랫동안 여성들을 배제해 왔던 스포츠인 축구를 통해 성별에 의한 차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양성평등 실현이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렸다.



'Unsafe on the streets' 보고서 발간

플랜이 새롭게 발간한 보고서 'Unsafe on the streets(안전하지 않은 거리)'에서는 남학생은 그들의 흥미나 유대감 형성을 위해 여아들을 따돌리거나 괴롭힌다고 전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지의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남성들의 괴롭힘 때문에 거리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플랜은 남성들과 함께 여성, 특히 소녀들을 위한 안전한 도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첼시, 요르단 아즈라크 난민캠프의 아동들과 축구 훈련

축구팀 첼시의 회장 브루스 벅과 첼시 재단 코치진, 플랜 영국이 3만 6000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생활 중인 요르단의 아즈라크 난민 캠프에 방문했다.

이들은 9살에서 16살 사이의 아동들과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봉사자들과 함께 장애가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축구 경기도 열었다.

플랜코리아 소식



소외지역 아동 응원행사 '꽃길만 걸어요'

플랜코리아와 에버랜드가 소외지역 아동 돕기 유모차 걷기 캠페인 '꽃길만 걸어요' 행사를 진행했다. 에버랜드 장미원 '꽃길'을 걸으며 기부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로 30여 셀러가 함께한 플리마켓, 홍보대사 애장품 판매, 희망 동전 던지기, 물동이 옮기기 체험, 희망 메시지 전하기, 인간 아이띠 만들기 등 다채로운 나눔 체험 속에 걸음수만큼 에버랜드가 아이들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안겼다.



홍보대사 간니닌니&JDB 소속 개그맨들, 베트남 곤똌 지역 봉사활동

키즈 크리에이터 '간니닌니'가 베트남 곤똌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JDB 엔터테인먼트 소속 개그맨 김대희, 조운호, 오나미, 이세진 역시 곤똌에서 Joy&Dream 캠페인이란 이름으로 놀이시설 지원 봉사를 펼쳤다.



플랜코리아-삼성엔지니어링, 태국 라용 지역 희망도서관 개관식

플랜코리아와 삼성엔지니어링이 태국 라용 지역에서 희망도서관 개관식을 열었다. 문맹률을 낮추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사업은 아동친화적인 독서 및 학업 공간의 제공과 교육권 확대, 학업 성취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플랜코리아-현대차, '현대드림센터 페루' 개관식 개최

플랜코리아가 현대자동차와 함께 '현대드림센터 페루' 개관식을 열고 청소년, 특히 여성의 안정적인 취업 연계에 힘쓰기로 했다. 남성중심적인 직업에 대한 여성 참여 촉진이라는 목표가 눈에 띈다. 이와 함께 '현대 드림센터 필리핀'에서는 자동차 정비교육 재능기부도 진행됐다.



플랜코리아-효성, 베트남 소외지역 '꼰춧마을' 초등학교 건립

플랜코리아와 효성은 베트남 소외지역인 꼰똥성 꼰플롱 현 꼰춧마을에 위치한 '꼰춧초등학교' 완공식에 참여했다. 효성이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이 지역은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곳으로, 63%나 되는 높은 빈곤율이 아이들의 낮은 교육 출석률의 원인이 된다.



플랜코리아-현대로템, 학대피해아동 지원

현대로템은 플랜코리아를 통해 가정 폭력 및 학대 피해아동들을 위한 치료비 3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후원금은 가정 폭력 및 학대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은 만 18세 이하 아이들 20명의 심리 치료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플랜코리아-현대제철, 필리핀 직업훈련센터 완공식 진행

플랜코리아가 필리핀에서 현대제철과 지원한 직업훈련센터 완공식을 진행했다. 필리핀 북사마르 주 내 소외지역 직업 창출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인 현대제철은 향후 2년간 센터 운영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임직원 봉사단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플랜코리아 후원자 모니터링단 '플러스' 2기 모집

플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직접 활동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
플랜의 활동에 소중한 의견을 더해주시길 후원자님을 찾습니다.



대상

플랜코리아 3개월 이상 후원자님(성인)



활동기간

2019년 7월 ~12월(6개월)



활동내용

플랜코리아 활동 모니터링 및 개선점 제안



모집일정

2019년 7월 7일(일) 까지 모집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go>>



활동혜택

The좋은여행 참여시 할인,
후원자 대상 행사 참여시 우대

모바일로 더욱 쉽게
플랜코리아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The좋은가게



plankorea.or.kr

후원문의 1544-3222